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거점형 중심지 공공시설 입지 및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Location and Management Plan of Public Facilities in the Rural Center Place by Declining Population

박 성 진* 강 인 호**
Park, Sung-Jin Kang, In-Ho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 use of Myeon Location in Jeollanam - do where the population is at risk of declining. And discussed the rational provision and coordination of public facilities as a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ational supply and adjustment directions of public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problems such as high availability of management, finance, shopping, and health facilities, lack of culture, leisure, community facilities, and weakening of center function. Therefore, in the continuing declining population situation, face management,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should be upgraded to multifunctional facilities, and utilization efficiency and integration should be promoted. In addition, town center rehabilitation should be centered on multifunc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elementary schools will have to utilize and preserve them to take advantage of local cultural values as nostalgia storing place that provide incentives for young people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future.

Second, in order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public facilities need to strengthen public services through complexity and multifunctionality, wide-area operation with neighboring areas, and user-centered operation management.

주 요 어 : 농촌중심지, 면소재지, 공공시설, 인구감소, 중심지 기능

Keyword : Rural center place, Myeon Location, Public Facilities, Decline in Population, Central-Place Func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농촌지역 지방정부의 중심지(면소재지)는 기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최소한의 공공기능만을 유지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면단위 농촌지역의 지속성 유지 여부는 중요한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 인구소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한국고용정보원, 2016),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방정부들은 향후 공공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재정부담, 이에 따른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와 기초서비스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농촌지역의 일정한 정주여건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게 운영하느냐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

이다.

현재 한국의 농촌지역은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에 군청소재지인 읍 지역으로의 인구이동과 공공시설 이용의 몰림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면소재지에 새로운 중심시설물을 공급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정책들도 일반 면소재지는 소생활권 중심지로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군청소재지 읍지역과 인구 3,000-10,000명 사이의 거점면소재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점면소재지를 공공시설의 다양화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거점면소재지는 농촌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시설의 입지와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지역 중심지인 면소재지 공공시설의 입지와 기능들은 과거 성장 중심시대의 패러다임과 정치논리에 의해 기능

* 조선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공학박사
**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행정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inhog@chosun.ac.kr)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6S1A5A2A03926680)

1) 변필성 외3인,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2014, p.4.

과 입지가 정해짐으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성장 중심의 논리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입지와 운영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농촌 내부의 다양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 공공시설은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기능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공공시설 이용자의 감소 및 공간적 산재, 취약한 재정력, 지역 내 중심지 체계의 변화, 핵심적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 증대 등에 대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기초서비스 기능 및 삶의 질 향상 관점의 중심지 내 공공시설의 공급과 조정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기초지방정부 중 인구소멸위험 단계에 있는 농촌 기초지방정부의 거점면소재지들을 대상으로 중심지 공공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합리적 입지와 이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의 입지(중심지로부터의 집중성)와 운영방안 개선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지의 공공시설 수, 중심지(면소재지의 최대 공시지가 필지)로부터의 거리(공공시설의 집중성), 거점면 인구 등을 통계청 자료와 현장조사(Field survey) 등을 통해 수집·정리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거점면소재지 공공시설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점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농촌지역 중심지 중 거점형 중심지2)내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축계 공공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3)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로 거점면소재지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 선행연구(송미령 외(2008), 김정연·박종철(2009))에서 거점면소재지가 농촌중심지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최근 정책방향이 농촌중심지 개발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선택과 집중

이 예상되는 차상위 중심지인 거점면소재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Survey

구분	평가항목
인구통계학적 특성	A1 성별, A2 연령, A3 직업, A4 거주기간
일반사항	B1 주 이용 공공시설, B2 방문횟수 B3 방문 시간대 B4 방문이유 B5 공공서비스 만족도
시설별 중요/만족도	C1-24 공공시설별 중요도 D1-24 공공시설별 만족도
공공시설 입지	E1 공공시설 접근성 E2 대중교통 편리성 E3 시설 간 보행 이용편의성 E4 집적화 E5 공공시설의 전반적 입지 만족도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F1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공공시설 F2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공공시설 F3 공공시설 조정 필요도 F4 공공시설의 조정 정도 F5 조정 대상 공공시설 G1 다기능 집적화 필요도 G2 운영 관리의 민간(민영)화 필요도 G3 장수명화 필요도 G4 필요시설의 민간시설 연계화 필요도 G5 이용 관련 규제 완화 필요도 G6 공공시설 이용 광역화 필요도 G7 공공시설 서비스/프로그램 재검토 필요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2016)에서 인구소멸위험단계(소멸위험지수 0.2-0.5미만)로 분류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일반적 인구수(3만-5만)에 해당하는 농촌지방정부 중 전남 함평군, 보성군, 곡성군, 장흥군의 거점면소재지 1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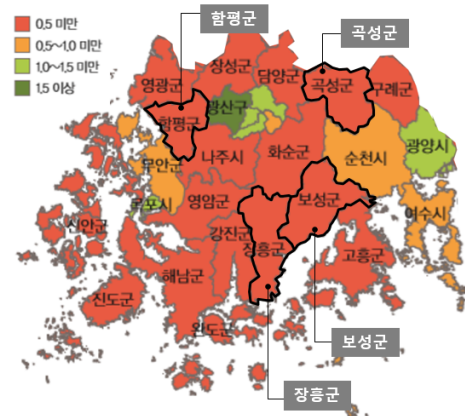


Fig. 1. Population Extinction Index and Research Site in Jeollanam-do

- 2) 충북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2014)는 농촌중심지를 1등급 시·군청소재지(1만명 이상), 2등급 일반읍소재지·거점면소재지(3천-1만명 미만), 3등급 일반면소재지(3천명 이하), 자체세력도 매우 약한 중심마을급 면소재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 분류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차상위 중심지인 거점면소재지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택하였다. 원광희,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농촌 중심지 기능제고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2014, p.112.
- 3) 본 연구에서 농협과 하나로 마트를 거점면소재지의 건축계 공공시설에 포함시킨 사유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이고, 하나로 마트는 과거(1995년 이전) 농협에서 농민들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던 농협공판장에서 명칭이 변경된 시설물이다. 농협과 하나로 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업과 일반중대형 소매점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인구(threshold population)를 필요로 하나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농협과 하나로 마트는 적정규모의 인구수보다 적은 거점면소재지에 위치하여 지역민의 생활서비스에 편익을 제공하는 등 일정부분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에는 총 14개의 거점면소재지가 있으나, 인구 30,000-50,000명 사이의 면소재지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인구 30,000-50,000명 규모의 면단위 중심지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Table 2. Basis Present Condition of Object of Interest Region

구분	면적(km) 구성비(%)	세대수	인구(명)			65세이상 고령자비율
			합계	남	여	
곡성군 옥과면	29.95 (5.5%)	2,294	4,720	2,364	2,356	1,068 (22.6%)
보성군 조성면	45.00 (5.5%)	2,171	4,187	1,993	2,194	1,614 (38.5%)
함평군 월야면	34.44 (5.5%)	1,989	4,109	2,161	1,948	1,330 (32.4%)
장흥군 회진면	26.20 (5.5%)	1,614	3,403	1,642	1,761	1,102 (32.4%)
함평면 해보면	39.47 (5.5%)	1,641	3,311	1,693	1,618	994 (30.0%)
보성군 회천면	54.00 (5.5%)	1,698	3,391	1,633	1,758	1,189 (35.1%)
함평군 나산면	55.56 (5.5%)	1,651	3,164	1,534	1,630	1,070 (33.8%)
장흥군 안양면	51.10 (5.5%)	1,797	3,454	1,693	1,761	1,180 (34.2%)
함평군 손불면	55.20 (5.5%)	1,944	3,791	1,852	1,939	1,409 (37.2%)
함평군 대동면	55.55 (5.5%)	1,520	3,133	1,562	1,571	807 (25.8%)

설문지 조사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공공시설 이용실태 관련 5문항,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별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련 48문항, 공공시설의 입지실태 관련 5문항,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도 관련 5문항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별 필요도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조사는 조사대상 10개 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2월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0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10개면에 각각 35부씩 배부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설문지를 39부를 제외한 나머지 31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지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 18.0)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값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공시설의 정의와 역할

송미령·박시현(2001)은 공공시설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communal facilities)’로 정의한 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생활관련 공동시설과 생산관련 공동시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동시설을 공공성과 함께 공동이용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2012)에 의하면 농촌 공동시설을 “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일부 비건축물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공공시설은 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급과 관리주체에 의한 정의보다 사용성과 공공성에 입각해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리 히로유키(森 裕之, 2016)는 공공시설을 주민에 대해서 동일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 지자체가 주민에 의한 공공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공민성, 공공시설 자체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근원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국민의 기본권 이외의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⁵⁾ 국토부의 공공부분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바람직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주안점 측면에서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한 이용과 안전, 차별 없는 공평한 공동 사용, 변화하는 사회적 시대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의 확보와 장소의 특성 고려를 언급하고 있다.⁶⁾ 이러한 정의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인구감소 사회에서의 공공시설의 공급과 조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기본적 인권의 보장, 주민의 공공적 욕구, 공민성의 함양, 커뮤니티에 대한 역할, 지역의 미래와 관련 주민의 주체적 역량 등 공공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과 기능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공급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가동률, 인구 동태, 재정 등의 객관적 지표로 통폐합에 의한 공급효율화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용과 생활관련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축소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지역주민 기초서비스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과 유지관리 방향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농촌지역의 유지와 주민의 기본권, 커뮤니티의 유지라는 복합적 삶의 질 관점에서 주민들의 인식중심의 중심지 공공시설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2 인구감소와 공공시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과거에 없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폐합 관점에서 공공시설의 공급을 접근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방정부 역시 인구감소에 따른 수축과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 중심적인 확장형 공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시대에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공공시설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통폐합하거나 이전하

5) 森 裕之, 公共施設の再編を問うー「地方創生」下の統廃合・再配置, 自治體研究社, 2016, pp.14-21.

6) 여혜진 외1인,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소, 2017, p.111.

는 조정방식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적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시설은 특성상 지역주민과 지역에 있어서 커뮤니티 동질성의 상징이 되는 것이며, 공공성을 포함한 공적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나카야마 토오루(中山 徹, 2017)는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과 조정방식은 공공시설의 규모가 아닌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규모가 아닌 공공시설 관련 서비스 존재의 유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공공시설의 세부적 공급과 조정방향으로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원칙으로 공공시설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공시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의 존재 유무와 관련한 배치이다. 공공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경우 사용 용이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시설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붕괴시킬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과 커뮤니티의 동질성 확보는 공공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은 접근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7)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6)의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 연구에서 농촌중심지 내부 공간 발전구도(거점지구)설정과 관련하여 거점지구는 농촌중심지 시가지내 각종 중심지기능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한 권역을 가리키며, 권역의 크기는 이용자 수(중심지까지의 크기, 배후마을들의 크

기)에 따라 상이하다. 그리고 거점지구의 필요성은 생활서비스 이용의 원 스톱화, 생활서비스 공급의 패키지화, 시설운영관리의 통합화, 교통여건의 통합적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따른 압축적 도시(compact city)화 준비 등에 있다. 따라서 중심지 전체가 아닌 거점지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심지기능시설이 집적되도록 하여 생활의 거점지로 형성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Table 3. A Preliminary Study on Public Facilities

저자	제목	내용
나카야마 토오루 (中山 徹, 2017)	인구감소와 공공시설의 전망	공공시설은 주민에 대해서 동일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차별 없는 공민성, 공공시설 자체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근원적 가치를 갖는 것
여혜진 (2017)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연구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누구나 쉽고 편리한 이용과 안전, 차별없는 공평한 공동 사용, 변화하는 사회적 시대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고 장소의 특성 고려
모리 히로유키 (森 裕之, 2016)	공공시설의 재편에 대해 묻는다 -지방창생	인구감소시대 공공시설의 공급과 정비는 규모가 아닌 배치를 우선한다. 즉 규모가 아닌 공공시설 관련 서비스 존재의 유무에 대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6)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 연구	농촌중심지는 시가지내 각종 중심지기능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한 권역으로 이용자수에 따라 상이 거점지구는 생활서비스 이용의 원스톱화, 생활서비스 공급의 패키지화, 시설운영관리의 통합화, 교통여건의 통합적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따른 압축적 도시화 준비 필요

Table 4. Cluster Analysis of Object of Investigation Myeon Office by Index of Centrality/Population

구분	옥과면	조성면	월야면	회진면	해보면	회천면	나산면	안양면	손불면	대동면	평균	
인구	4,720	4,187	4,109	3,403	3,311	3,391	3,164	3,454	3,791	3,133	3,666	
공공시설수	공공청사	3	3	3	3	3	3	3	3	3	3.0	
	교육시설	4	3	2	3	3	3	3	3	2	2.9	
	보건의료	1	1	1	1	1	1	1	1	1	1.0	
	금융업무	2	2	2	2	2	2	2	2	2	2.0	
	상업시설	2	2	2	2	2	1	2	1	1	1.6	
	문화체육	2			1	2	1		1			1.4
	사회복지	1	1	4	2	1	2	1	1	1	1	1.5
	교통시설	1	1	1	1	1	1	1	1	1	1	1.0
공동체 시설	1	2		3	2	1	2	1	1		1.6	
합계	17	15	15	18	17	15	15	14	13	11	15.0	
공공시설집중성	공공청사	195	174	430	455	197	468	186	85	206	434	283.0
	교육시설	572	263	374	601	436	463	682	392	304	130	421.7
	보건의료	221	103	361	364	220	569	284	135	100	94	245.1
	금융업무	94	181	118	52	332	175	136	75	116	174	145.3
	상업시설	242	238	51	234	102	126	135	91	101	98	141.8
	문화체육	245			185	188	609		93			264.0
	사회복지	259	154	281	196	240	409	177	119	187	94	211.6
	교통시설	29	155	35	251	230	41	20	26	64	37	88.80
공동체 시설	214	108		362	163	173	217	120	131		186.0	
합계	230.1	172.0	235.7	300.0	234.2	337.0	229.6	126.2	151.1	151.5	216.74	

7) 中山 徹, 人口減少と公共施設の展望 「公共施設等総合管理計画」への對應, 自治體研究社, 2017, pp.70-71.

거점지구의 크기는 중심지의 크기, 배후마을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면중심지의 경우 반경100m 권역 내외, 읍중심지는 반경 300m 권역 내외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⁸⁾ 그리고 거점지구 내에 중심기능 시설 배치 및 복합화·연계화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및 보행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방안, 보행로 개선 등 관련 교통시설 등의 배치 방안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을 성장 중심의 논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중심지의 합리적 집적화 방안을 위해 통폐합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기능의 존재유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들의 집중성과 접근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의 원스톱화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집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3. 조사대상지 특성

조사대상 10개 면소재지의 인구규모는 거점면소재지 중 분포 비중이 높은 5천명 이하의 면소재지이며 10개 면단위의 평균 인구는 3,666명이고, 공공시설 수는 평균 15개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공청사, 교육시설, 보건/의료, 금융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은 거의 유사한 시설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 공동체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공공시설의 집중성 분석결과, 중심지내 최대지가 필지로부터의 평균거리는 교통시설 88.8m, 금융시설 145.3m, 상업시설 141.8m, 공동체 시설 186m, 공공청사 283m, 보건/의료 245m, 문화체육 264m, 사회복지 211m, 교육시설 421m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중심지의 경우 반경100m 권역 내외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교통시설, 금융시설, 상업시설의 집중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외의 시설들은 집중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청사와 보건/의료 시설의 경우 1990년대 노후시설물들의 확장적 신축과정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곽화 된 것이다.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시설 역시 2000년대 이후 공급과정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시설들은 면소재지가 형성된 이후 입지하였고 또한 교육시설의 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조사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6
 9) 조사대상 중 대동면의 경우 공공시설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의 통합 및 집적 복합화에 의해 시설 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7.3%, 여성이 52.7%였으며, 연령은 30~50대가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관리직이 전체의 37.6%, 자영업이 22.2%, 전문/자유직이 10.6%이다. 응답자의 56.9%는 면소재지에 거주하며, 거주기간은 26.7%가 5년 미만, 20.3%가 20~30년, 17.4%가 10~20년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Subject Composition of Survey(person, %)

구분	f(%)	구분	f(%)	
성별	남성 147(47.3)	19-29세	40(12.9)	
	여성 164(52.7)	30대	47(15.1)	
	전체 311(100.0)	40대	70(22.5)	
거주 지역	면소재지 177(56.9)	연령	50대	96(30.9)
	면 내 마을 66(21.2)		60대	43(13.8)
	기타지역 68(21.9)		70대 이상	15(4.8)
	전체 311(100.0)		전체	311(100.0)
거주 기간	5년미만 83(26.7)	직업	자영업	69(22.2)
	5-10년 37(11.9)		사무/관리직	117(37.6)
	10-20년 54(17.4)		전문직/자유직	33(10.6)
	20-30년 63(20.3)		농업/어업	14(4.5)
	30-40년 24(7.7)		단순/기능직	11(3.6)
	40-50년 30(9.6)		전업주부	23(7.4)
	50년 이상 20(6.4)		학생	9(2.9)
	전체 311(100.0)		기타	35(11.3)
			전체	311(100.0)

4.2 공공시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공공시설의 일반적 이용 상황

조사대상 면소재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공시설을 이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용횟수와 시간대, 이용목적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Current status of public facilities

구분	내용	f(%)	내용	f(%)
이용 횟수	주1회 이상	140(45.0)	월1-3회	132(42.4)
	3개월에 1회	30(9.6)	6개월에 1회	4(1.3)
	연간1회	3(1.0)	없음	2(0.6)
이용 시간대	평일오전	80(25.7)	토일오전	-
	평일오후	154(49.5)	토일오후	7(2.3)
	평일야간	9(2.9)	토일야간	3(1.0)
	불특정	58(18.6)	전체	311(100.0)
구분	내용		f(%)	
이용 목적	친한 지역 주민이 모이고 이용하기 때문에		46(14.8)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96(30.9)	
	이용하고 싶은 다른 시설들이 없어서		61(19.6)	
	활동 관련 설비 등을 갖춘 장소가 없어서		18(5.8)	
	행사, 주민활동 프로그램 등 참여를 위해		43(13.8)	
	기타		47(15.1)	
	전체		311(100.0)	

이용횟수는 '주1회 이상'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월 1~3회'가 42.4%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월1~3회 이상 면소재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시간대는 평일오후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공공시설들의 이용편의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공간구조상 중심지 공공시설의 상시 이용 중심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스톱 집적화를 통한 효율화 및 이용편의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에게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을 5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다중응답 처리한 분석결과는 다음 Fig. 2와 같다.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는 면사무소였으며, 다음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 보건지소, 우체국 순이었다. 이는 거점면 소재지이지만 행정, 금융, 필수적 생활용품, 기본 의료/보건 관련의 공공시설 중심의 이용 빈도가 높고 그 외 문화, 여가,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의 이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심지 기능에서 문화, 여가,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의 부족 및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농촌중심지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기능들을 보완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공공시설의 중요도 및 이용만족도

면소재지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48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심지의 행정, 금융, 필수적 생활용품, 기본 의료/보건 관련 시설들의 이용만족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공공시설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사분위표로 분포시켜 본 결과, 행정(면사무소, 파출소, 119구조대), 금융(농협, 우체국), 상업(하나로 마트), 보건(보건지소)과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교통시설(정류장), 면 노인회 등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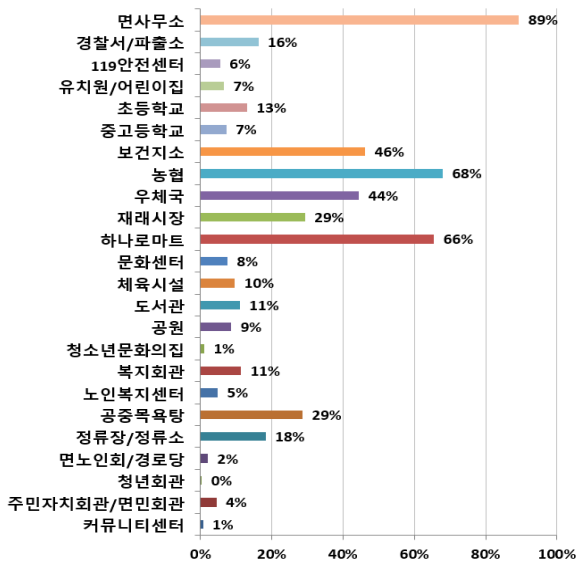


Fig. 2. Most commonly used public facilities (multiple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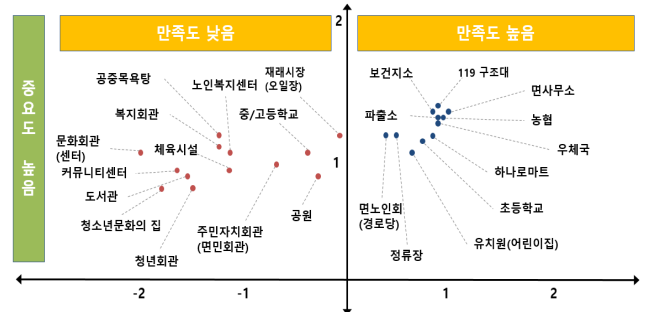


Fig. 3.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Public Facilities in Urban Area

그러나 주민자치 등의 커뮤니티 관련 시설(면민회관, 청년회관), 문화여가체육시설(문화회관,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체육시설), 복지시설(복지회관, 공중목욕탕, 노인복지센터), 재래시장, 공원 등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긴 하나 실질적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쇠퇴와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공공재원의 투입의 한계와 중심지의 주 이용시설들 간의 집중성이 낮은 배치로 인한 접근성과 이용도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공시설의 공급과 조정에 있어 규모의 논리가 아닌 배치 유무의 논리인 공공시설의 다기능 시설화를 통한 집적화가 하나의 해결책 일 수 있다.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다기능 집적화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3 공공시설의 입지 관련 만족도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입지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4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3.7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도보이용에 대한 만족도(3.43)는 가장 낮았다. 즉 도보이용보다는 차량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발생과 증가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도록 집약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집중성 분석결과 공공시설은 평균 216m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반경 100m 이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집적도가 낮아서 보행 이용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Satisfaction with the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in the Myeon location

구분	M(SD)
1 공공시설 접근성	3.71(800)
2 공공시설을 이용 대중교통의 편리함	3.44(866)
3 공공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하기 편함	3.43(1,000)
4 공공시설들이 중심지에 잘 모여 있음	3.57(898)
5 공공시설들의 입지(위치)관련 만족도	3.57(877)

Table 8. Factors affecting location satisfaction

구분	입지 만족도	
	B	β
공공시설 접근성	.169	.154**
공공시설을 이용 대중교통의 편리함	.096	.095*
공공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하기 편함	.169	.193***
공공시설들의 집적도	.509	.521***
C	.215	
R ²	.670	
Adjust R ²	.665	
F-value	154.981***	
D. W.	1.899	

* $p < .05$, ** $p < .01$, *** $p < .001$

입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시설 입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집적도’($\beta = .521$, $p > .001$),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하기 편함’($\beta = .193$, $p > .001$),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접근성’($\beta = .154$, $p > .01$),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편리함 정도’($\beta = .095$,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시설들의 원스톱 서비스화를 위해서는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4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조정에 관한 인식도

(1)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도

인구감소에 따른 면소재지내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49.7%), 매우 필요(26.1%)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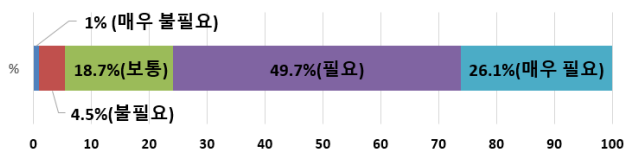


Fig. 4. The Need for Adjustment of Public Facilities in the Myeon location

또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119 안전센터, 보건지소,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서/파출소, 농협, 재래시장, 하나로 마트, 문화센터, 도서관, 복지회관, 공중목욕탕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시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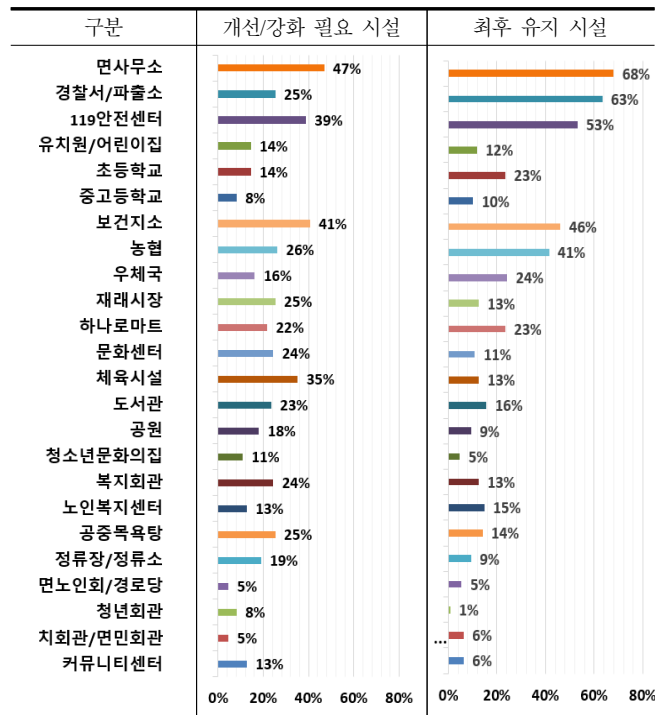
행정, 안전, 보건시설 등의 개선 및 강화의 필요도가 높은 것은 고령화 인구비율 상승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외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기본적인 일상 생활서비

스와 최소한의 여가, 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면 거점지역의 기능이 쇠퇴하더라도 최후까지 존속해야할 공공시설로는 면사무소, 경찰서, 119안전센터, 보건지소, 농협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우체국, 하나로 마트 순으로 나타났다. 즉 최후 유지 공공시설로 행정, 안전, 보건 관련 시설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개선 및 강화시설의 응답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문화, 여가 관련 공공시설은 최후 유지시설로 비중이 낮았다.

이상의 분석결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할 때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은 행정, 안전, 보건시설 중심의 집적화와 조정, 그리고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기능 시설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마지막까지 존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하나로 선택된 이유는 향후 젊은층의 인구유입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지역주민 근린의 장소로서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협과 하나로 마트는 농촌지역에서 생활서비스와 관련해 제공하고 있는 공공성과 편익성이 높다는 반증이며, 농촌지역 중심지에서 면사무소, 경찰서, 119안전센터, 보건지소 등과 같이 중요한 시설로 취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9. List of public facilities within the Myeon location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and that they should be maintained to the end



(2) 공공시설의 조정 방향

공공시설 조정의 방향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 요구나 재정 상황에 맞게 양을 줄인다’(56.9%),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20.9%)의 순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규모의 하

향조정에 동의하고 있다.

Table 10. Residents' Opinion on Public Facility Adjustment

구분	f(%)
지역주민 요구나 재정 상황에 맞게 양을 줄인다	177(56.9)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	65(20.9)
공공시설의 종류와 양을 늘린다	59(19.0)
적극적으로 줄인다	10(3.2)
전체	311(100.0)

또한 조정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이용자가 적은 공공시설과 노후화된 공공시설,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있는 공공시설을 우선적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축물의 장수명화, 공공시설의 집중화 및 복합화를 통한 공공시설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공시설의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 방식별로 필요도를 조사해본 결과, '복합화/다기능화의 필요'(3.96), '기존시설의 장수명화 필요'(3.81), '공공시설의 광역화 필요'(3.77), '서비스 프로그램의 재검토 필요'(3.77), '공공시설 이용 규제 완화 필요'(3.72)가 상대적으로 그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방안'(3.64), '민간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의 재건축 유지 관리 방안'(3.5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공공시설의 조정방식에 있어 민간의 개입에 의한 조정이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공시설의 조정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한 조정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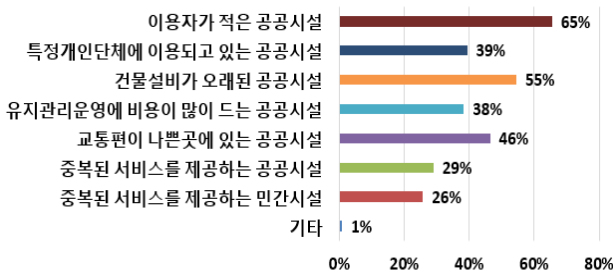


Fig. 5. Public facilities that require adjustment within the Myeon location

Table 11. Necessity by Public Facility Adjustment Method

구분	M(SD)
1 다기능 집적화	3.96(.742)
2 민간사업자나 시민단체와 협동하여 공공시설을 재건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안	3.54(.918)
3 기존의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및 보수·점검	3.81(.933)
4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3.64(.863)
5 자유로운 공공시설 이용, 공공시설의 이용시간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이용을 쉽게 하는 방안	3.72(.863)
6 인근 지방정부와 제휴, 협동으로 공공시설을 건설·운영하거나 인근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77(.858)
7 공공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프로그램내용의 재검토	3.77(.822)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 방안별 필요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 조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기능 집적화'($\beta=.185, p>.01$), '공공시설의 광역화를 통한 질적 개선'($\beta=.156, p>.05$), '공공시설 이용 규제 완화 쉬운 이용'($\beta=.132,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 중심지 내 공공시설의 조정은 규모가 아닌 배치 즉, 다기능 시설화를 통한 집적화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결하기 힘든 경우 공공시설을 인접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광역화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성과 관련하여 공급자(행정)중심의 유지관리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12.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Public Facilities Adjustment by Adjustment Method

구분	입지 만족도	
	B	β
다기능 집적화	.205	.185**
민간사업자나 시민단체와 협동	.026	.029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보수·점검	.047	.053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066	.070
자유로운 공공시설 이용, 공공시설의 이용시간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이용을 쉽게 하는 방안	.125	.132*
인근 지방정부와 제휴, 협동으로 공공시설을 건설·운영	.149	.156*
C	1.415	
R^2	.200	
Adjust R^2	.184	
F-value	12.629***	
D. W.	1.770	

* $p<.05$, ** $p<.01$, *** $p<.001$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점면소재지 공공시설의 이용은 주1회(45%)가 가장 많았고, 이용 사유는 이용에 편리함(30.9%)이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는 면사무소, 농협, 하나로 마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3.48)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행정(면사무소, 파출소, 119구조대), 금융(농협, 우체국), 상업(하나로 마트) 등으로 분석되었다.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 입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공시설 집적도, 공공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하기 편함, 공공시설 접근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에 따른 면소재지 내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시설로는 행정, 응급, 보건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따른 중심지 최후 유지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안전, 응급, 보건, 금융 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시설 조정의 방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와 재정 상황에 맞게 공공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응답이 과반수(56.9%) 이상이었다. 조정이 필요한 공공시설로는 이용자가 적은 공공시설과 노후화된 공공시설 등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시설의 조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방안별 필요요인은 ‘다기능 집적화’, ‘공공시설의 광역화를 통한 질적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거점면소재지는 현재 행정, 금융, 필수적 생활용품, 보건 관련 공공시설 중심의 이용성이 높고, 중심지 기능에서 문화, 여가,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의 부족 및 기능 약화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적 쇠퇴와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공시설은 규모의 논리가 아닌 배치 유무의 논리로서 다기능 시설로의 전환과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된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공시설들을 중심으로 다기능 시설화 하고 시설의 이용 효율화와 집적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기능 시설을 핵으로 한 중심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 및 강화시설과 최후 유지 공공시설에서 모두 행정, 안전, 보건 관련 시설의 비중이 높은 점과 최후 유지시설에서 문화, 여가 관련 공공시설의 비중이 낮은 점을 미루어보아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의 조정은 면사무소, 119안전센터, 보건지소 등을 중심으로 한 다기능 시설로 전환을 통해 공공시설들의 윈스톱 서비스화의 집적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향후 젊은층의 유인과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지역민의 향수 저장소로서의 지역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서라도 활용과 보존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가미시호로 정으로서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소규모 인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농촌 소도시이다. 기존 10,000명 규모의 도시에서 2012년 ‘5,000명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인구 5,000명에 적합한 콤팩트 시티를 추구 하고, 행정서비스의 윈스톱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개편하는 집약화에 초점을 두고 향후 인구감소시대에 적합한 도시조성을 한 사례로서 소규모 농촌소도시에서는 공공시설의 개편이 삶의 터전의 일부로서 콤팩트 시티 전략에 적합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¹⁰⁾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촌지방정부 중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거점면소재지들을 대상으로 중심지 공공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서 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과 조정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농촌지방정부만을 대상으로 거점면소재지의 공공시설에 대해 포괄적 접근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각각의 공공시설별로 도시·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에 따른 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이용 및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적 부분이 포함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광선·이규천,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 김광익, 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4
3. 김정연·박종철,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4), 2009, pp.19-40
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6
5. 변필성 외3인,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2014
6. 송미령·박시현,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7. 송미령,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pp.90-91
8. 여혜진·김은희,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9. 원광희,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농촌 중심지 기능제고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2014
10.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2016
11. 中山 徹, 人口減少と公共施設の展望 「公共施設等総合管理計書」への対応, 自治體研究社, 2017
12. 森 裕之, 公共施設の再編を問う—「地方創生」下の統廃合・再配置, 自治體研究社, 2016

접 수 일 자 : 2018. 07. 05
수정일자 1차 : 2018. 08. 03
재제확정일자 : 2018. 08. 06

10) 강인호, 일본 축소도시의 콤팩트 시티 추진전략, 한국정책학회보, 27(2), 2018, pp.221-244.